

후쿠다 “상대 싫어하는 것 할 필요 있나”

한-일, 북-일 관계 개선 여부 주목

“상대 싫어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후쿠다 야스오 신임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한 대답이다.

후쿠다 총리가 26일 총리로서의 본격 행보에 들어감에 따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2차대전 당시 군대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 발언 등으로 마찰을 빚어온 한-일관계의 개선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일단은 후쿠다 총리가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의 연대를 강화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종전 정권에 비해서는 관계 개선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그가 역사 문제나 독도 영유권 등 한국과의 마찰 소지가 높은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충돌을 피하려 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다만 후쿠다 총리가 당장은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 문제나 격차 해소, 정치자금 투명성 문제 등 지난 참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이반의 직접적인 원인을 해소하는데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게 문제다. 한일관계 개선이란 성과가 나오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총리의 분신 역할을 해야 하는 마치무라 노부타카 신임 관방장관이 야스쿠니신사 참배 옹호론자가



지난 25일 제91대 일본 총리에 선출된 후쿠다 야스오(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일본 자민당 총재와 이날 출범한 새 내각 각료들이 도쿄의 총리 공관에서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면서 일본의 침략사를 왜곡·미화하는데 앞장서 왔던 인사라는 점, 또 후쿠다 총리가 당내 각 파벌의 도움으로 총리가 된 만큼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아베 정권에서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남북 관계 개선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후쿠다 총리는 아베 정권과는 달리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자민

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내 손으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납치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핵도 미사일도 포기하게 되면 국교 수립도 가능하다”고 아베 정권과는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다.

10월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대북 경제제재 시한 재연장 여부가 후쿠다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도쿄=연합뉴스



潘 총장과 사르코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오른쪽)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25일 뉴욕 시내 한 레스토랑으로 함께 걸어가면서 오기는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들은 24~25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고위급회의에 참석했다. /AP=연합뉴스

사상 첫父子 총리·고령자 순위 3번째...

■ 후쿠다 日 총리 새 기록들

후쿠다 야스오 일본 자민당 총재가 25일 제91대 총리로 선출되면서 다양한 기록들이 나왔다.

후쿠다 신임 총리는 내각제가 실시된 1885년 초대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 이후 58번째가 된다. 2차대전 이후로는 29명째다.

31년 전 취임한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의 아들로서 일본 최초로 부자(父子)가 총리에 오른 기록도 세웠다. 출신 지역을 볼때 2차대전 이후로는 후쿠다 총리 출신자인 군마(群馬)현이 4명으로 총리 최다 배출 지역이 됐다. 후쿠다 부자와 나가소네 야스히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가 군마 현 출신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출신지인 야마구치현은 종전까지 3명의 총리를 탄생시켜 군마현과 어깨를 나란히 했으나 후쿠다 총리 취임으로 1위 자리를 내주게 됐다.

그러나 2차대전 이전을 포함할 경우엔 야마구치현이 8명으로 수위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21개 도현(道縣)은 2차대전 전후를 포함, 단 한명

의 총리도 배출하지 못했다.

후쿠다 총리는 고령 총리 기록도 세우게 됐다. 총리 취임 당시의 연령을 비교할 경우 최고령자는 2차대전 종전 당시의 스즈키 간타로(취임 당시 77세) 전 총리였다.

최연소는 초대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로 44세였다. 현행 헌법 시행 이후는 이시바시 단잔, 미야자키 기이치 전 총리가 72세로 최고령이었다.

후쿠다 신임 총리는 부친인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 하토야마 이치로 전 총리와 같은 71세로서 현행 헌법 시행 이후 고령자 순위 3위 타이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또 후쿠다 총리는 53세에 중의원 의원에 처음 당선되며 뒤늦게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50세를 넘은 나이에 초선 의원이 된 뒤 총리 자리를 차지한 사례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의 출신 대학도 주목된다. 2차대전 후 총리의 출신대학은 요시다 시게루, 하토야마 이치로,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 등 도쿄대가 10명으로 가장 많다. 후쿠다 총리의 출신 대학인 와세다대가 6명으로 뒤를 이었다. /도쿄=연합뉴스

中 물권법 내달부터 전면 시행

(사유재산 보호법)

중국 공산정권 수립 이후 처음으로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문화한 물권법이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된다. 물권법은 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법안 통과시부터 많은 관심을 집중시켜왔다. 중국은 물권법 실시로 사유재산권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자본주의화에 가속 페달을 밟게될 전망이다.

주택·토지사용권 자동연장 등 명시 ‘사회주의 시장경제’ 한걸음 진전

◇주택 토지사용권 자동 연장=물권법은 70년으로 정해진 주택 토지사용권이 기한만료 후 자동연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사유재산권을 인정했다.

다만 비주택건설용지 사용권 연장은 인가 절차가 필요하다. 또 물권법은 기업의 토지 수용시 보상원칙을 명시하였으며 농촌 집단토지수용의 보상기준도 명확히 했다.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권은 인정했지만 처분권은 제한했으며 농가택지 사용권의 시장유통도 금지했다. 토지사용권 외에 일조권 보호 조항을 새로이 추가했다. 이밖에 생산설비, 원재료, 반제품, 재고품 등 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폭넓게 허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선의취득제도, 가등기제도를 도입한 것도 특징이다.

중국의 의회적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

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물권법 시행의 중요한 기초가 될 부동산관리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물권법의 순조로운 시행에 법률적 토대를 마련한 이 수정안은 공공이익에 따라 국유토지 건물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법에 의거해 이전, 철거 보상을 하도록 명시했다.

수정안은 피징수인에 대한 거주 보장 등 합법적 권익에 대한 구제 내용을 국무원이 규정한다고 밝혔다.

◇모호한 규정 논란-빈부격차 확대 우려=물권법은 사회주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 사유재산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지만 물권법 조항에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아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중국이 당면한 빈부격차가 이번 사유재산 인정으로 더욱 확대될 수도 있으며 국유재산의 유실 가능성도 우려된다.

하지만 중국은 물권법 시행으로 사유재산을 국유재산과 똑같이 평등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제도적인 완성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게됐다. /상하이=연합뉴스

“태극기가 중국 대륙 뒤덮었다”

해군 독도함 로고에 中 들썩



지난 7월 취역한 한국 해군 최초의 대형수송함인 독도함의 로고(사진)가 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의 지도에 태극기를 오버랩시킨 형태의 독도함 로고에 대해 중국 인민일보사 자매지 환구시보는 24일 “최근 경제력의 성장에 따라 한국에서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이 로고는 지난 6월말 한국의 국방 관련 시민단체 웹사이트를 통해 외부

에 공개됐다. 이 시민단체는 7월2일 독도함 취역 전 해군 초청으로 독도함을 방문한 뒤 참가기를 웹사이트에 올리면서 독도함의 로고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신문은 “단체측은 처음에는 태극기가 중국 대륙을 뒤덮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웹사이트로 옮겨지면서 ‘태극기로 중국 대륙을 뒤덮는 독도함 로고’라는 상당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어 “더욱 불쾌한 것은 ‘태극기가 중국 대륙을 뒤덮는 것’을 ‘동북아의 해상통제권을 확보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신문은 한국의 일부 인터넷 게시판에서 독도함 로고를 두고 벌어진 네티즌의 논란도 함께 소개했다. /평양=연합뉴스

“해수면 상승으로 ‘美 월스트리트·실리콘밸리’ 사라진다”

과학자들 전망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뉴욕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많은 명소들이 물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과학자들이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권위있는 지질학탐사사업 자료를 이용, 에리조나 주립대 연구진이 해수면 1m 상승 상황을

가정해 작성한 해안 지도에는 초기 정착민들이 건설한 버지니아주 제임스타운도 빠져 있고 플로리다주에 있는 미국 최초의 유인우주선 발사대도 보이지 않는다.

학자들은 앞으로 1세기 안에 빙하와 빙산 녹은 물에 은수대 확장이 겹쳐지면서 해수면이 1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인류가 당장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

한 행동에 착수한다 해도 달라지

지 않을 미래의 그림이다. 해수면이 1m 상승하면 월스트리트도 실리콘 밸리도 없어지고 대도시 공황과 대표적인 주간(州間) 고속도로도 사라진다. 부유한 명망가들의 해변 별장이나 학생들의 방학철 휴양지인 텍사스와 플로리다 해변 역시 모두가 물 속에 잠기게 된다. /워싱턴AP=연합뉴스

국립보건연구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캠페인
태아의 “아버지가 붉은 줄은 갈고양이”를 사랑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복통약이었고,
머리 아플 때는 두통약이고 해열제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랑으로 낮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깃든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지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비타민 A, C, E의 보충
-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
- 눈의 건조감과 안구 피로
- 피부 미용과 노화 예방
- 위장 장애 완화 및 소화 촉진
- 미용과 피부 건강
- 알코올 해독 및 피로 회복
- 심혈관 질환 예방 및 혈관 건강
- 수면장애 완화
- 면역력 강화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ten.com
고객센터 080-022-2200